

특별
세션

2

River & Culture

「하천의 날」 제정

하천의 날: 매년 5월 2일

우리협회는 하천의 보호와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하천분야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매년 5월 2일을 「하천의 날」로 제정키로 하고 지난 2009. 4. 27 ~ 4. 30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서 「하천의 날 선포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금번 「하천의 날」을 제정하게 된 취지로는, 하천은 국가의 공적자원으로 공공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뿐 아니라 나이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하천의 중요성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하천의 날」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매년 5월 2일을 하천의 날로 제정한 이유는, 먼저 계절적 배경으로 우기(6월 20일~9월 20일)에 대비하여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 전에 국민들에게 하천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천과 관련 있는 의미 있는 날을 정하여 5월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역사적 배경으로 하천과 연관된 역사적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1485년 5월 2일(월요일)은 한강(용산강)의 물길을 잡아준 날로 조선왕조실록 중 성종실록의 본문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하천의 날」 제정을 통해 하천의 보호와 물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매년 기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은 물론 다양한 하천관련 기념행사를 통하여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하천분야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하천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니 앞으로 모든 하천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 ☺



『하천의 날』 선포식 장면